

Holland 흥미 모형과 5요인 성격 모형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박동건 · 김성훈* · 허영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Holland 흥미 모형과 5요인 성격 모형간의 관계에 관해서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표본은 직업을 가진 성인 표본(전국 유층 무선표본)과 일반 대학생 표본이었다. 두 표본에서 획득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에 사용한 5요인 성격검사와 흥미 검사가 충분한 구성타당도와 일반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성격과 흥미 두 특질간의 상호관련성에도 불구하고, 각 특질이 고유의 독자적인 영역을 측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직업 상담 장면에서 개인에 관한 보다 충실하고 정확한 정보획득을 위해서는 종전에 주로 사용해오던 흥미 검사 외에 성격 검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최근 들어 직업 상담, 선발 혹은 경력개발 등의 장면에서 다양한 심리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실제 직업 장면에서는 개인의 특질에 관한 보다 자세하고 폭넓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심리검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각 심리검사가 측정하는 영역이 제한적이고, 각 검사의 심리 측정적인(psychometric) 특성 즉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 등의 지수가 완벽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하는 심리검사들에 관한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검증 자료없이 여러 검사를 무작정 함께 사용하는 것은 자칫 거의 유사한 영역을 측정하는 여러 종류의 검사를 사용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비효율

과 낭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는 철저히 검약성(parsimony)을 추구해야 하는 심리검사의 목표와 의도에 반하는 일인 것이다. 아울러 함께 사용하는 검사들의 관계성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없이는 각 검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테면, 함께 사용한 여러 검사들의 검사 결과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개인의 특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직업 장면에서 치러지는 각종 심리검사의 결과 해석은 개인의 장래에 지속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정확한 결과 해석의 폐해도 심각한 것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직업 장면에서 자주 사용되는 흥미 검사와 성격 검사 사이의 관계성에 관한 경험적 검증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 표본과 일반 대학생들의 표본에 대해 두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각 검사의 구조와 검사간 관계성이 다른 성인 표본으로 일반화할

* corresponding author임.

** corresponding author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도 실시해 볼 것이다.

Hogan과 Blake(1996)에 의하면, 성격과 흥미는 개념상의 차이를 갖고 있다. 즉, 이들은 추상화 수준에서 흥미가 성격보다 더 구체적이라고 하였다. 흥미는 보다 구체적 대상과 관련되는 선택의 동기 측면이 반영된 개념인 반면, 성격은 흥미를 비롯하여 신념, 태도, 동기, 습관 등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것이다. 반면에 흥미 모형으로 유명한 Holland(1985)는 자신이 전개한 흥미이론이 개인의 성격적 특질에 기반을 둔 것이며, 성격이론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개인의 경력 결정에는 성격이 반영되어 있고, 자신의 흥미유형론은 그러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였다. Gottfredson, Jones, 및 Holland(1993), Tokar와 Swanson(1995), Schinka, Dye, 및 Curtiss(1997) 등은 성격과 흥미와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성격과 흥미 이론의 관련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진로 상담과 같은 현실적인 장면에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즉,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이고 서로 중복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두 이론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많은 심리학자들은 성격과 흥미라는 각자의 독립적인 영역에서 개인차를 연구해 왔다. 성격특질, 직업흥미 두 영역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주목할 만한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은 성격의 5요인 이론(Costa & McCrae, 1984)과 Holland의 직업 흥미 모형(Holland, 1973, 1985)일 것이다.

성격의 5요인 이론(Five Factor Model; FFM)은 다양한 성격 이론들을 근거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성격 검사 결과들을 경험적으로 통합해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5요인 이론은 가장 적은 수의 성격 차원들로 효율적으로 성격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이론이 되었다. 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성격의 5요인은 외향성(extraversion), 호감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정서적 불안정성(neuroticism),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으로 요약될 수 있으므로, 이 다섯 가지의 성격 차원으로 정서, 대인관계, 경험, 태도, 동기 유형 등의 다양한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여러 연구자들은 5요인 이론이 개인의 성격에 대한 안정된 정보를 제공해주므로, 개

인차와 관련된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McCrae와 Costa(1985)는 NEO-PI-R을 가지고 다른 검사들과의 상관 연구를 실시했는데, 많은 성격이론들이 5요인으로 환원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성격의 5요인은 수행을 예측하는데 높은 타당도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즉, 성격에 대한 안정된 분류 틀을 가짐으로써 준거 관련 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Ones, Viswesvaran, 및 Schmidt(1993)은 성격의 5요인 중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으로 구성된 정직성검사로 성격과 수행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여러 직업 집단에서 .41의 타당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성격 이외에 사람들의 개인차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흥미모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기계기술 활동에, 다른 사람은 사회적 접촉과 사회활동이 많은 취미 생활에 강한 흥미를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은 흥미유형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모형을 1950년 후반에 John Holland(1966, 1973, 1985a)가 개발하였다. Holland의 모형은 현실형(Realistic; R), 탐구형(Investigative; I), 예술형(Artistic; A), 사회형(Social; S), 진취형(Enterprising; E), 및 관습형(Conventional; C)의 여섯 개 직업 흥미 유형을 중심으로 한 이론으로 발전되었는데, 현재 그의 이론은 거의 이견이 제시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Holland의 흥미 모형은 흔히 육각모형(Hexagonal Model) 혹은 RIASEC 모형으로 불리기도 한다. Holland의 직업 흥미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의 흥미는 위에 언급한 6개 유형으로 대별될 수 있고 이 흥미 유형을 기본단위로 하여 현실-탐구형, 예술-사회형, 혹은 사회-진취-예술형과 같은 이들의 조합으로 세분될 수 있다.

자신의 직업 흥미 이론에 관해 설명하면서 Holland(1966, 1973)는 성격과 직업 선택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성격의 직업에 끌린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Holland의 흥미 유형과 성격 특성들 간의 개략적인 관계를 정리해서 표 1에 제시했다.

이처럼 Holland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 성격의 역할을 강조했다. 즉,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여

표 1. 흥미유형별 특성

흥미 유형	성격 형용사적 특징
현실형 (Realistic)	비사교적인(асocial), 순응적인(сonforming), 실용적인(рractical), 완고한(inflexible), 통찰력 부족한(uninsightful), 완고한(inflexible).
탐구형 (Investigative)	분석적인(analytical), 복잡한(сomplex), 독립적인(independent), 내성적인(introspective), 말수가 적은(reserved), 인기 없는(unpopular).
예술형 (Artistic)	감정적인(emotional), 감정을 나타내는(expressive), 충동적인(impulsive), 내향적인(introspective), 개방적인(open) 비순응적인(nonconforming), 민감한(sensitive),
사회형 (Social)	협조적인(сooperative), 친절한(friendly), 도움주는(helpful), 이해심많은(understanding), 사교적인(sociable), 따뜻한(warm).
진취형 (Enterprising)	야심적인(ambitious), 거만한(domineering), 활기에찬(energetic), 외향적인(extraverted), 유쾌한(agreeable), 자신있는(self-confident), 사교적인(sociable).
관습형 (Conventional)	조심성있는(careful), 순응적인(сonforming), 성실한(сonscientious), 효율적인(efficient), 상상력이 부족한(unimaginative), 지속적인(persistent), 내성적인(inhibited)

러 상황에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하며, 특정 직업이나 집단 내에서 각각의 특징적인 환경을 창조한다. 따라서 Holland(1992)는 특정 직업에서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 안정감, 및 성취는 개인의 성격과 개인이 일하는 환경간의 일치(congruence)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또 그(1973)는 "직업 흥미가 성격의 표현 중 하나로 해석된다면, 그것은 직업, 교과목, 취미, 여가 활동, 선호 등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성격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직업 흥미'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성격의 또다른 측면일 뿐이다... 만약 직업 흥미가 성격의 발현이라면, 이는 흥미 검사는 곧 성격 검사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일찍이 Darley와 Hagenah(1955)는 직업흥미 검사를 "성격이론의 특별한 사례"로 여겼으며 "흥미는 직업 세계에서 개인의 가치 체계, 욕구, 및 동기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경험적인 수준에서 둘 간의 관계성에 관해 고찰한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Johnson, Flammer, 및 Nelson(1975)은 흥미 영역의 고차 요인 분석(higher factor analysis)을 통해서 CPI와 SVIB간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했고, 이 분석을 통해 성격과 흥미 간 상관관계

의 의미있는 패턴을 밝혀낼 수 있었다. Hogan(1983)도 마찬가지로 Holland의 6개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두 개의 광범위한 성격 요인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Hogan은 두 개의 직교 차원 - 사교성(Sociability)과 응종성(Conformity) - 으로 6개 유형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성격과 흥미가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는 논의가 있었던 반면에 동시에 서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심리학자도 있었다. 두 개념의 차이에 관한 논의는 주로 각 검사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성격 검사와 흥미 검사가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Hofstee(1990)에 의하면, 성격 검사를 구성하는 전형적인 문항들은 "조건적(conditional)" 특성 - 즉, 특정 상황에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하는 경향성의 표현 - 을 지닌다. 또한, 성격 검사는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는 반응, 특질 및 속성, 생활사, 태도와 신념, 자신에 대한 타인의 반응, 등이 섞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잠재된 특성은 이러한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추론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Hogan(1983)은 성격 검사가 다양한 상황에서도 일정하게 나타나는 개인의 전형적인 반응을 얻는 것이라면, 흥미 검사는 여러 활동, 역할, 사람들

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상적인 자아상(idealized self-concepts)을 구성하는데 필요하고 선호하는 활동, 역할, 사람 부류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상기한 연구들 외의 상당히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다소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성격과 흥미는 부분적인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어느 하나가 나머지를 모두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포괄성은 지니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결론에 다른 연구가 아주 많았다. 예를 들면, Peraino와 Willerman(1983)은 4개의 직업군(Realistic, Investigative, Social, Enterprising)의 성인 남성에게 16PF를 적용했다. 연구결과, 진취형은 외향성 요인의 하위 척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탐구형 근로자는 인지적(대 정서적) 지향성을 측정하는 척도와 독립성을 측정하는 척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Goh와 Leong(1993)은 Holland 유형과 Eysenck의 성격이론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119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SCII (Strong Campbell Interest Inventory)의 Holland의 6개 유형과 EPQ(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의 3개의 하위차원(Extroversion, Neuroticism, Psychoticism)간의 교차상관을 구했다. 그러나, 현실형과 신경증(Neuroticism)과의 관계가 -.32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검사간의 상관수치는 .30을 넘지 못했다.

Kanfer, Ackerman, 및 Heggstad(1996)의 연구에서도 성격 척도 중 일부인 심리적 행복감 척도(well-being)는 흥미의 사회형과 .28, 또 사회성(social potency)은 사회형 및 진취형과 각각 .31과 .48, 그리고 성취(achievement)는 진취형과 .27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격의 통제(control)와 전통주의(traditionalism) 모두 흥미의 관습형과 정적 상관(각각 $r=.20$ 과 $.24$)을 보였고, 반면 전통주의는 예술형과 부적상관($r=-.24$)을 보이기도 했다. 몰입(absorption)은 예술형 및 현실형과 정적으로 상관(각각 $r=.55$ 와 $.31$)되었고, 위험회피(harm-avoidance)는 예술형, 현실형, 및 탐구형과 부적 상관(각각 $r=-.26$, $-.33$, 및 $-.23$)을 보였다.

Hogan과 Blake(1996)는 성격의 5요인 모형과 유사한 차원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성격 척도와 Holland의 직업 흥미와의 상관연구를 하였는데, 그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격의 외향성은 흥미의 사회형 및 진취형과, 호감성은 사회형, 진취형, 및 현실

형(-)과, 성실성은 관습형과, 마지막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예술형 및 진취형과 관계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Gottfredson, Jones, 및 Holland(1993)의 연구는 근본적인 흥미-성격간 관계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지지를 해주는 결과를 보였다. 연구자들은 725명의 미해군 훈련생도들을 대상으로, 성격특성은 FFM(예를 들어, NEO-PI 및 그와 유사한 검사들, Guilford-Zimmerman Temperament Survey, Hogan Personality Inventory, CPI 등)으로 측정하였으며, 흥미는 Holland의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 (VPI) 또는 그의 Self-Directed Search(Holland, 1985; SDS) 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위의 연구를 통해, Gottfredson 등은 사회형과 진취형의 흥미 유형은 성격의 외향성과, 탐구형 및 예술형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마지막으로 관습형은 성실성과 관련된다고 결론지었다. Costa, McCrae, 및 Holland(1984)는 SDS 점수와 NEO-PI(Costa & McCrae, 1985)의 외향성, 신경증, 개방성 점수와 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성격요인과 RIASEC 모형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3개의 유의한 관계($r>.40$)가 도출되었다. 첫째는, 남녀 모두에서 외향성과 SDS의 사회형 및 진취형간의 관계가, 둘째는, 남녀 모두에서 개방성과 SDS의 예술형간의 관계가, 셋째는, 여성에서만 개방성과 SDS의 탐구형간의 관계가 나타난 것이다. 이 결과는 RIASEC과 5요인 모형간의 부분적인 상응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관계는 성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Tokar와 Swanson(1995)은 679명의 직장 성인을 가장 높은 SDS 점수에 따라 R,I,A,S,E,C 중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성격의 5요인 영역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NEO-PI의 축소판인 NEO-PI Five Factor Inventory(Costa, McCrae, & Holland, 1984)를 사용하였으며, 6개 그룹에 속한 개인들을 분류하는 함수를 구하기 위해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개방성과 외향성 요인이 6개 유형들을 판별해주는 변인이었고 여성의 경우, 개방성, 외향성, 및 호감성 요인들이 판별력이 가장 높은 변인이었다. 성격의 5요인은 RIASEC 변량을 남녀 각각 65%, 40% 설명하였다.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NEO-PI의 개정판인

NEO-PI-R과 Holland의 SDS를 사용하여 Schinka, Dye, 및 Curtiss(1997)가 5요인과 RIASEC 유형간의 관계를 1,034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남성의 경우, 흥미의 RIASEC 유형은 성격의 5요인 중 개방성과 외향성 요인에 의해 구분되었고, 여성은 개방성, 외향성, 및 호감성 요인에 의해 구분되었다. 즉, 5요인의 외향성, 호감성, 및 개방성 요인과 RIASEC의 진취형, 예술형, 및 사회형 유형간의 연결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전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Schinka 등의 연구에서도, 5요인 모형에서는 흥미의 현실형을 측정할 수 없었으며, 여성에서만 탐구형과 관습형을 포함할 수 있었다. 또한 RIASEC 유형은 5요인의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은 거의 측정할 수 없었다.

Fruyt와 Mervielde(1997)은 다양한 전공의 벨기에 대학생 934명을 대상으로 5요인과 흥미유형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5요인은 NEO-PI-R의 네덜란드판을 사용하였고, RIASEC 유형은 SDS를 사용하였다. 두 모형간의 관계는 요인분석과 상관관계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5요인의 외향성은 RIASEC의 사회형 및 진취형과, 개방성은 예술형과 강한 상관을 보였으며, 개방성은 관습형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졌다. 국내에서도 안창규(1996b)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Holland의 직업 흥미와 성격 5요인 이론, MBTI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한 바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Holland의 직업 흥미 차원 중에서 현실형을 제외한 나머지 차원에서 성격의 5요인들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예술형 점수는 성격 5요인 중에서 개방성($r=.46$) 차원과, 사회형은 성격의 외향성($r=.24$), 진취성($r=.28$)과, 그리고 관습형은 개방성($r=-.33$), 성실성($r=.26$)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안창규(1996a; 1996b)의 연구는 표본이 대개 학생이었으므로 Holland의 직업 흥미 차원을 고르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따라서 결과 일반화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흥미 검사의 경우, 연구 표본이 직업인인가 아닌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보면 아쉬움이 남는 연구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흥미와 성격간 관계성에 관한 다소 일관성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일관성은 각 연구에서 사용한 성격 검사나 흥미 검사들이 모두 동일한 검사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의미가 있고, 성격 5요인 이론이나 Holland의 흥미 이론은 이미 상당한 정도의 일반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된다. 그러나 각 연구마다 세부적인 결과 면에서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된 이유들 중에서 중요한 한가지는 표본의 이질성 때문일 것이다. 성격이나 흥미 검사가 모두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업 등과 같은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동일한 점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점이 상기한 연구결과들의 비밀관성에 관한 부분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상기한 연구가 한 나라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고 몇몇 나라에서 진행되었던 것인 만큼 연구가 이루어지는 문화권의 특성도 부분적으로 결과의 비밀관성을 일으킨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여러 연구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6개의 직업흥미 유형과 5개의 성격요인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두 검사간에 중복되는 차원이 무엇이고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하는 차원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데 의미를 둘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 직업인 표본(전국 표본)과 대학생 표본을 사용해 연구 결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성격과 흥미간의 관계에 관한 일반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에 더해, 본 연구결과를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새롭게 제작된 직업 흥미 검사와 성격 검사간의 논리 부합적 타당도(nomological validity) 역시 확인해 볼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표본은 성인 전국 표본이다. 이 표본은 20세 이상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1997년 12월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표집되었다. 표본 추출은 '1995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비례 할당 및 다계층 층화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본 추출시 고려한 변인은 성별(2수준: 남,여), 연령(5년 단위, 8수준: 20세~60세), 지역(8수준: 경기, 강원, 충청남·북, 전라남·북, 경상남·북), 거주지(3수준: 대도시(6개 도시), 중소도시(32개 도시), 군지역(16개 군)이었다. 두 번째 표본은 대학생 소표본이다. 이 표본은 서울 소재 모 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재학생 110명이었다. 응답자의 특성을 표 2에 정리해 놓았다.

표 2. 응답자 특성

성 별	연 령	지 역	거 주 지
전국 표본			
남 408명	24세이하 97명	경기 385명	대도시 398명
여 392명	25-29세 165명	강원 25명	중소도시 287명
	30-34세 115명	충청 72명	군지역 115명
	35-39세 132명	전라 93명	
	40-44세 110명	경상 225명	
	45-49세 56명		
	50-54세 78명		
총 800명	55세이상 47명		
대학생 표본			
남 79명			
여 31명			
총 110명			

측정 도구

1. 성격 검사

우선 두 개의 표본에 사용한 성격 검사는 동일하게 성격 5요인 모형을 근거로 제작된 것이지만 문항수와 요인명이 달랐다. 먼저 전국표본에 사용한 성격 검사는 성격의 5요인 이론을 기초로 만들어진 NEO-PI-R과 HPI(Hogan Personality Inventory), PRF(Personality Research Form), 그리고 16PF(16 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re) 검사 문항들을 참고하여 우리 나라 정서 및 문화에 맞도록 내용적으로 수정하여 제작한 것으로 총 28개 하위 차원, 17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5요인별 문항 선택 방법은 상기한 각 검사의 테크니컬 매뉴얼(technical manual)을 참고하여 1차로 문항 분류를 한 뒤, 각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5요인과 다른 성격검사와의 개념적 관련성을 연구한 문헌들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응답자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외향성 : 5개의 하위차원 (총 29 문항)
2. 호감성 : 6개의 하위차원 (총 33 문항)
3. 성실성 : 6개의 하위차원 (총 44 문항)
4. 정서적 불안정성 : 6개의 하위차원 (총 37 문항)
5. 경험에 대한 개방성 : 5개의 하위차원 (총 29 문항)

만면 대학생 표본에 사용한 성격 검사는 NEO인성검사(민병모, 이경임, 정재창, 1997)였다. 이 검사는 NEO-PI-R(Costa & McCrae, 1992)을 변안한 것으로 국내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표준화가 이루어진 검사이다. 이 검사는 신경증,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30개 차원, 2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흥미 검사

흥미 검사는 Holland의 SDS(Self-Directed Search), VPI(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 검사와 Strong의 SVIB(Strong Vocational Interest Blank) 검사의 틀에 따라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및 관습형 6개의 흥미 유형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2문항이다. 그리고 이들 문항들은 활동, 선호분야, 유능성, 직업, 그리고 일반성향 등의 5개의 하위 영역별로 다시 구분되어 있다. 각 영역들은 여섯가지의 흥미 유형에 대해서 고루 묻고 있으나, 문항 분석 결과 신뢰롭지 못한 문항들은 일부 첨삭했으므로, 각 흥미유형별로 동일한 수의 문항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각 하위 영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활동 : 평소에 좋아하거나 하고 싶어하는 활동들을 알아본다(총 48 문항).
2. 유능성 :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다(총 30 문항).
3. 직업 : 평소에 어떤 직업을 더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했는지를 알아본다(총 54 문항).
4. 선호분야 : 현재나 과거에 어떤 과목이나 학문분야를 좋아했는지 알아본다(총 30 문항).
5. 일반성향 : 자신이 일반적으로 어떤 성향이나 태

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본다(총 36 문항).

질문은 문항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각 흥미 유형을 대표하는 활동, 선호분야, 유능성, 직업, 그리고 일반성향과 관계된 문항을 읽고, 각 문항에 대해서 '좋음 혹은 잘함', '싫음 혹은 못함', 그리고 '관심없음 혹은 중간정도'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차원 특성에 따라 척도 기술을 약간씩 달리 했다. 단 일반 성향에 관한 문항들은 선택지가 세 개가 아니고 '그렇다' 와 '아니다'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 흥미 검사는 대학생 표본에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채점은 5개 척도(활동, 유능성, 직업, 선호분야, 일반성향)별로 6개 흥미 차원(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에 해당하는 문항에 대하여 '좋다' 또는 '그렇다'라고 답한 개수를 더한다. 다음에 6개 흥미 차원별로 각각 5개 척도점수를 합한다. 예를들어 현실형 차원의 점수는 5개 척도(활동, 유능성, 직업, 선호분야, 일반성향)의 현실형 점수를 모두 더한 점수가 된다.

결 과

검사의 요인구조

5요인 성격 검사와 흥미 검사의 요인구조는 두 가지 표본에 대해서 각각 구하였다. 요인추출방식은 주축요인분석(Principle Axis Factoring)이었고, 회전방식은 Varimax였다.

1. 성격 검사의 요인구조

우선 전국 표본에 사용한 성격 검사의 경우, 28개의 하위척도를 요인분석에 포함시켰으며 결과적으로, 뚜렷한 5요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대학생 표본에 사용한 성격 검사인 NEO-PI-R은 모두 30개의 하위척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분석도 30개의 하위차원 모두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를 표 3과 표 4에 제시했다. 두 가지 전혀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결과는 대학생 표본에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요인에서 두 개의 하위차원이 제대로 묶이지 않는 점과 요인의 순서와 설명

량이 조금 달라졌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유사했다. 이처럼 특성이 다른 두 가지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된 성격 검사의 요인구조가 거의 유사하다는 점은 새로이 제작된 성격 검사의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에 관한 한가지 증거가 될 수 있다. 대학생 표본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요인의 이름은 NEO인성검사 매뉴얼에서 사용한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다.

표 3은 전국 표본에서 획득한 성격 검사 자료의 요인구조이다. 요인 1은 성실성, 요인 2는 외향성, 요인 3은 정서적 불안정성, 요인 4는 호감성, 그리고 요인 5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요인이었으며, 이들은 전체 변량의 53.8%를 설명하였다.

표 4는 대학생 표본에서 획득된 자료의 요인구조이다. 이 표에서 요인 1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요인 2는 정서적 불안정성, 요인 3은 외향성, 요인 4는 성실성, 그리고 요인 5는 호감성이었으며, 이들은 전체 변량의 59.6%를 설명하였다. 이처럼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경험에 대한 개방성 중 활동, 가치 하위척도를 제외한 모든 하위차원들이 성격의 5요인구조로 통합되고 있었다. 대학생 표본의 크기가 전국표본에 비해서 작고(n=110) 표본이 거의 동질적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비교적 분명한 구조가 확인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2. 흥미 검사의 요인구조

흥미 검사의 경우, 30개의 하위척도를 요인분석에 포함시켰으며 결과적으로 뚜렷한 6개의 요인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를 표 5과 표 6에 제시했다. 두 표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결과는 매우 유사해서 흥미 검사의 요인구조가 여러 표본에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전국 표본에서 획득된 흥미 검사 자료의 요인분석에서도 Holland의 6각의 요인 구조가 지지되고 있었다. 요인은 차례대로 진취형, 예술형, 현실형, 탐구형, 사회형, 및 관습형이었으며, 46.8%의 설명 변량을 보였다. 사회형의 직업, 선호차원은 관습형 요인(요인 6)에 더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고, 관습형의 행동, 유능, 일반은 의도했던 요인에 매우 낮은 요인 부하량으로 걸려있다는 점에서, 요인의 변별성을 다소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관습형 이외의 요인에서는 뚜렷한 요인구조를 보이므로 전반적으로는 6각의 모형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표 3. 5요인 성격 검사의 요인구조
(전국 표본 n=800)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완벽성	.859				
자기 통제력	.742				
조직화 능력	.675				
책임감	.622			.414	
목표 지향	.588				
유능감	.582				
적극성		.723			
온정성		.711			
사교성		.669			
긍정성		.651			
리더십		.436			
불안			.796		
우울			.670		
자의식			.599		
스트레스			.593		
분노	-.446		.408	-.489	
충동성	-.436		.356	-.439	
도덕성				.654	
타인배려				.651	
겸손				.597	
휴머니즘				.472	
타인 믿음				.439	
수용성				.381	
문화					.709
상상력					.630
정서					.623
지적 호기심					.590
경험추구		.434			.444
고유값	7.826	3.359	1.626	1.349	.904
설명 변량(%)	28.0	12.0	5.8	4.8	3.2
누가설명량	28.0	39.9	45.8	50.6	53.8

주. 요인부하량이 .30 이상인 경우만 표시했음.

아울러 대학생 표본에서 얻어진 흥미 검사 자료 역시 요인분석했다. 결과는 전국 표본에서 획득된 자료의 구조와 요인의 순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했다.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했다.

성격의 5요인과 6개 흥미유형간의 관계

성격과 흥미간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나누어 보기로 하였다. Holland의 SDS나 Costa와 McCrae의 NEO-PI-R 점수가 성별에 따른 규준에 근거하고 있으며, 실제 Hansen, Collins, Swanson, 및 Fouad (1993)에 의해 문항, 척도, 구조수준에서 흥미에 대한 성차가 있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Tokar와 Swanson(1995), 그리고 Schinka(1997) 등은 직업흥미와 성격간의 상용성이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표 7은 분석에 앞서, 성별에 따른 점수의 평균,

표 4. 5요인 성격 검사의 요인구조
(대학생 표본 n=110)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상상	.621				
심미	.621				
감정	.705		.402		
활동	.031			.646	
독창	.527				
가치	.094				.399
걱정		.763			
분노		.470			
위축		.762			
열등		.836			
충동	.570	.480			
심약		.753			
온정			.565		
사교			.737		
주장	.407		.330		
활력			.657		
열정	.588		.415		
낙천			.657		
자신	.484		.384	.426	
질서				.726	
소명				.725	
성취				.663	
자율				.776	
속고				.765	
신뢰					.666
솔직					.352
이타					.565
순응					.820
겸양					.498
온유	.473		.366		.393
고유값	7.073	4.300	2.847	2.122	1.545
설명 변량(%)	23.6	14.3	9.5	7.1	5.2
누가설명량	23.6	37.9	47.4	54.5	59.6

주.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인 경우만 표시했음.

표준편차, 그리고 평균차이에 대한 t검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흥미유형에서는 현실형(F=292.5283, p<.001), 탐구형(F=18.7308, p<.001), 예술형(F=55.8848, p<.001), 사회형(F=27.4039, p<.001), 진취형(F=49.1929, p<.001)이, 그리고 성격 검사에서는 성실성(F=20.5833, p<.001)과 정서적 불안정성(F=27.6790, p<.001) 요인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보다 현실형(F=292.53, p<.001), 탐구형(F=18.73, p<.001), 진취형(F=49.20, p<.001)이며 성실성이 높은 편(F=20.58, p<.001)이다. 반면, 여성들은 남성보다 예술형(F=55.88, p<.001), 사회형(F=27.40, p<.001)이며, 정서적 불안정성(F=27.67, p<.001)이 높다.

그리고 대학생들로만 구성된 표본에 대해서도 남녀별 차이검증을 실시했다. 그러나, 대학생 표본에서는 흥미유형 중에서 현실형(F=10.226, p<.002)에서만

표 5. 흥미 검사의 요인구조(전국 표본 n=800)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직업 E	.630					
행동 E	.609					
선호 E	.575					
일반 E	.574					
유능 E	.533			.409		
직업 A	.800					
행동 A	.762					
선호 A	.710					
일반 A	.543					
유능 A	.437					
직업 R		.789				
행동 R		.731				
선호 R		.699				
유능 R		.670				
일반 R		.552				
선호 I			.711			
유능 I			.571			
직업 I			.560	.403		
행동 I			.479			
일반 I			.467			
유능 S				.616		
일반 S				.505		
행동 S				.503		
직업 S				.435	.545	
선호 S				.413	.451	
직업 C					.524	
선호 C	.514				.474	
행동 C	.452				.210	
유능 C					.026	
일반 C					.047	
아이겐값	6.156	2.791	1.217	1.375	1.204	.808
설명변량	20.5	9.3	5.7	4.6	4.0	2.7
누적변량	20.5	29.8	35.5	40.1	44.1	46.8

주. 요인부하량 .30 이상의 경우만 표시했음.

표 6. 흥미 검사의 요인구조(대학생 표본 n=110)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직업 A	.708					
행동 A	.806					
선호 A	.781					
일반 A	.713					
유능 A	.678					
직업 E		.512				
행동 E		.773				
선호 E		.651				
일반 E		.671				
유능 E	.373	.543				
직업 I			.789			
행동 I			.804			
선호 I			.836			
일반 I			.606			
유능 I			.543	.444		
직업 R					.578	
행동 R					.660	
선호 R					.680	
일반 R					.735	
유능 R					.669	
직업 S		.465			.682	
행동 S					.437	
선호 S		.354			.728	
일반 S		.489			.354	
유능 S					.260	
직업 C					.376	.499
행동 C	.514				.686	
선호 C	.452				.570	
일반 C					.344	
유능 C					.492	
아이겐값	4.895	3.984	2.629	2.186	1.420	1.055
설명변량	16.3	13.3	8.8	7.3	4.7	3.5
누적변량	16.3	29.6	38.4	45.6	50.9	53.9

주. 요인부하량 .30 이상의 경우만 표시했음.

표 7. 흥미 검사와 성격 검사의 성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전국표본)

검 사	남성(408명)		여성(392명)		F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흥미 검사					
현실형(32점 만점)	14.279	7.134	7.010	4.553	292.528***
탐구형(32점 만점)	9.027	6.642	7.145	5.585	18.731***
예술형(32점 만점)	10.681	7.015	14.398	7.045	55.885***
사회형(32점 만점)	15.213	6.095	17.525	6.398	27.404***
진취형(32점 만점)	15.145	7.189	11.735	6.530	49.193***
관습형(32점 만점)	12.576	6.020	12.839	6.076	.379
성격 검사					
외향성(145점 만점)	96.507	11.128	95.250	11.585	2.452
의향성(145점 만점)	100.390	9.480	101.844	9.154	3.758
호감성(165점 만점)	153.262	18.362	147.587	16.958	20.583***
성실성(220점 만점)	99.630	16.265	105.477	15.119	27.679***
정서적 불안정성(185점 만점)					
경험에 대한 개방성(145점 만점)	93.118	11.392	93.880	12.058	.846

주: *** p<.001

남성들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남성=9.55, 여성=4.00). 이밖에 나머지 흥미 유형과 모든 성격 검사 차원에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생 표본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요약표를 만들지 않았다.

표 8과 표 9에서는 성격 검사와 흥미 검사 각각의 신뢰도(Cronbach-Alpha)와, 남녀별 각 척도간 상관관계를 요약하였다. 우선 표 8에서 대각선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성격 검사와 흥미 검사가 전반적으로 .757 이상의 안정된 신뢰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검사 내에서의 상호관계는 개념적인 관련성과 일치하는 패턴임을 알 수 있다. 먼저 흥미유형의 경우, Holland의 흥미 6각 구조 상에서 인접한 유형간의 관계가 대각선의 관계보다 훨씬 큰 상관이 있음을 보였다. 현실형-탐구형(남, r=.186; 여, r=.420), 탐구형-예술형(남, r=.495; 여, r=.365), 예술형-사회형(남, r=.410; 여, r=.379), 사회형-진취형(남, r=.494; 여,

r=.479), 진취형-관습형(남, r=.460; 여, r=.411)의 관계가 현실형-사회형(남, r=.161; 여, r=.249), 탐구형-진취형(남, r=.239; 여, r=.410), 예술형-관습형(남, r=.298; 여, r=.240)의 관계보다 높았다. 이는 Holland가 가정한 변별성과 응집성 개념과 일치하는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성격 요인간 상관관계에서 의미있는 점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성실성이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인데, 남(r=-.623), 여(r=-.470) 모두에서 그 관계가 유지되었다. 이 외에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호감성 및 정서적 불안정성과 의미없거나 매우 낮은 상관을 보였다.

전국 표본 분석에서 단순상관만으로 본 성격과 흥미간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 외향성이 사회형, 진취형과 각각 .391, .474, 호감성이 사회형과 .378, 성실성은 진취형, 관습형과 각각 .370, .395의 상관을 보였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예술형에 가장 높은 상관(r=.638)을 보였고,

표 8. 흥미 검사와 성격 검사간의 상관표 (전국표본 n=800)

차원명	1	2	3	4	5	6	7	8	9	10	11
1 현실형	0.90	.42**	.27**	.25**	.23**	.20**	.06	.04	.06	.01	.11*
2 탐구형	.19**	0.89	.37**	.27**	.41**	.32**	.12*	.02	.23**	-.03	.34**
3 예술형	.17**	.50**	0.89	.38**	.48**	.24**	.28**	.07	.30**	-.10*	.59**
4 사회형	.16**	.36**	.41**	0.86	.48**	.36**	.40**	.42**	.30**	-.25**	.31**
5 진취형	.12**	.24**	.36**	.49**	0.88	.41**	.41**	.02	.35**	-.15**	.44**
6 관습형	.09	.36**	.30**	.44**	.46**	0.85	.10*	.13*	.31**	-.04	.14**
7 외향성	.10*	.07	.21**	.39**	.47**	.16**	0.86	.22**	.45**	-.25**	.46**
8 호감성	.12*	.10*	.07	.37**	.05	.09	.20**	0.76	.31**	-.40**	.06
9 성실성	.08	.22**	.20**	.34**	.37**	.39**	.44**	.35**	0.92	-.47**	.47**
10 불안정성	-.06	-.14**	-.05	-.25**	-.21**	-.19**	-.23**	-.47**	-.62**	0.90	-.01
11 개방성	.03	.40**	.64**	.34**	.34**	.24**	.41**	.11*	.41**	-.11*	0.85

주. 대각선 아래로는 남성에 대한 상관계수가 기록되어 있고 대각선 위로는 여성에 대한 상관계수가 기록되어 있다. * p<.05, ** p<.01을 의미한다.

표 9. 흥미 검사와 성격 검사간의 상관표 (대학생표본 n=110)

차원명	1	2	3	4	5	6	7	8	9	10	11
1 현실형	0.80	.35	.52**	.12	.23	.07	.36*	-.09	.09	-.04	.29
2 탐구형	.27*	0.85	.21	.35	.47**	.53**	.13	-.08	.32	-.07	.27
3 예술형	.02	-.13	0.86	.40*	.35	-.06	.32	.16	.01	.11	.36*
4 사회형	.09	.00	.36**	0.77	.16	.17	.16	.45*	-.01	.23	-.02
5 진취형	.04	-.24*	.19	.47**	0.81	.27	.33	-.26	.40*	-.13	.33
6 관습형	.06	-.01	-.07	.33**	.40**	0.66	-.27	.16	.24	-.16	-.04
7 외향성	.22	-.08	.25*	.36**	.45**	.16	0.80	.18	.36	.14	.67**
8 호감성	.13	.08	-.01	.19	-.16	-.10	.23*	0.86	.20	-.07	.21
9 성실성	.09	.08	.11	.22*	.32	.33**	.51**	-.01	0.82	-.14	.54**
10 불안정성	-.06	-.31**	-.02	-.20	-.14	-.02	.08	.15	-.29*	0.68	.01
11 개방성	.20	.10	.48**	.39**	.18	.09	.62**	.26*	.42**	-.00	0.64

주. 대각선 아래로는 남성에 대한 상관계수가 기록되어 있고 대각선 위로는 여성에 대한 상관계수가 기록되어 있다. * p<.05, ** p<.01을 의미한다.

탐구형과도 관계($r=.401$)가 있었다. 여성의 경우, 외향성은 사회형($r=.389$), 진취형($r=.408$), 호감성은 사회형($r=.422$)과, 성실성은 진취형($r=.350$)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예술형($r=.587$), 진취형($r=.445$)과 관계가 있었다.

대학생 표본을 가지고 상관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상당 부분 전국 표본 자료를 통해 획득한 상관관계 결과와 유사했다(표 9).

상관분석이 남녀에 따라 각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으므로 대학생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다는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결과는 비슷했다. 예를들어, 남성의 경우 외향성이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과 각각 .25, .36, 그리고 .45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전국 표본 분석 결과와 거의 동일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성실성은 관습형과 .33의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예술형에 가장 높은 상관($r=.48$)가지고 있었다. 여성의 경우, 외향성은 진취형($r=.33$), 호감성은 사회형($r=.45$)과, 성실성은 진취형($r=.40$)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예술형($r=.36$)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도 전국 표본 분석 결과와 동일했다.

보다 직접적인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흥미 유형에 대한 성격요인들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격은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개인의 특성인 반면, 흥미는 특정 분야에 대한 개인의 선호인 점을 들어 성격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흥미유형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회귀결과는 표 10와 표 11에 정리하였다. 통계적 유의미 수준($p<.05$)에서 흥미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현실형은 호감성($\beta=.112$) 이외에 다른 어느 성격요인에 의해서도 유의미하게 예측되지 않았다. 탐구형은 외향성에 의해 부적적인 관계($\beta=-.151$)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 의해서는 정적인 관계($\beta=.465$)로 설명되었다. 예술형은 오직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었는데 .702의 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보였다. 사회형은 외향성, 호감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같이 여러 요인에 의해 유의미하게 예측되었다.

진취형은 다른 요인(호감성, $\beta=-.144$; 성실성, $\beta=.144$; 경험에 대한 개방성, $\beta=.134$)보다 외향성에 의해 가장 많이($\beta=.366$) 설명되었고, 관습형은 성실성에 의해서만 예측되었다($\beta=.460$).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전국표본 분석 결과와 유사한 패턴의 결과가 나왔다. 전국표본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예술형과 사회형, 진취형이 성격요인으로 설명되는 비율이 높았다. 대학생의 경우 흥미 특성의

표 10. 흥미에 대한 성격요인들의 회귀(남성: 전국표본)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외향성	.090	-.151**	-.052	.255**	.366**	-.052
호감성	.112*	.022	.031	.256**	-.144**	-.006
성실성	.056	.066	-.057	.040	.144*	.460**
정서적 불안정성	.047	-.086	-.025	-.006	-.067	.104
경험에 대한 개방성	-.059	.465**	.702**	.216**	.134**	.099
중다 상관 R	.157	.473	.668	.537	.525	.432
R-square	.024	.224	.446	.289	.276	.187

주. 기록된 숫자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이며, * $p<.05$, ** $p<.01$ 을 의미한다.

표 11. 흥미에 대한 성격요인들의 회귀(남성: 대학생표본)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외향성	.191	-.203	.010	.240	.556**	.013
호감성	.078	.130	-.154	.114	-.232*	-.100
성실성	-.076	.023	-.148	-.074	.045	.368*
정서적 불안정성	-.105	-.310*	-.040	-.257*	-.135	.101
경험에 대한 개방성	.094	.180	.570**	.244	-.115	-.041
중다 상관 R	.265	.378	.509	.489	.544	.356
R-square	.070	.143	.259	.239	.296	.127

주. 기록된 숫자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이며, * $p<.05$, ** $p<.01$ 을 의미한다.

분포가 제한적이므로 해석상의 한계는 있었지만, 회귀계수의 유의미성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전반적으로 회귀계수의 크기가 전국 표본의 분석 결과와 상당히 유사했다. 전국 표본 분석 결과와 다른 점은 탐구형과 사회형의 경우 정서적 불안정성의 예측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성의 경우, 현실형은 어느 성격요인과의 관계가 없었으며, 탐구형은 성실성에 의해서도 유의미하게 예측($\beta=.141$)되었지만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 의해 높게($\beta=.353$) 예측되었다(표 12). 예술형에서도 정서적 불안정성($\beta=-.105$) 요인보다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 의해 가장 높게($\beta=.636$) 예측되었다. 사회형은 외향성($\beta=.230$), 호감성($\beta=.342$), 경험에 대한 개방성($\beta=.184$)에 의해, 진취형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제외한 4개의 성격요인(외향성, $\beta=.228$; 호감성, $\beta=-.136$; 성실성, $\beta=.126$; 경험에 대한 개방성, $\beta=.279$)에 의해 유의미하게 설명되었다. 관습형에서는 성실성이 가장 큰 예측력($\beta=.447$)을 보였지만, 정서적 불안정성($\beta=.201$), 호감성($\beta=.104$)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대학생 표본에서 획득된 자료 역시 회귀 분석하였다. 그러나, 표본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아서($n=30$) 의미있는 추론을 하기 어려웠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표본의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형에서 호감성($\beta=.479$), 진취형에서 역시 호감성($\beta=-.391$)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성격변인들이 흥미요인을 의미있게 예측하지 못했다.

두 표본 모두에서 남성의 경우 공통적으로 5개의 성격요인들은 현실형을 거의 예측하지 못하였다. 현실형에 대한 5개의 성격변인이 2%(전국)와 7%(대학생)의 설명변량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전국 표본에서는 1.6%의 설명변량을 가졌지만, 대학생

표본에서는 17.8%의 설명량을 보였다. 즉 남성의 경우 현실형은 성격변인들이 다루고 있지 않은 영역 중 상당 부분을 측정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표본과 대학생 표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남성의 사회형을 예측하는 성격요인이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호감성으로 같았으며(물론, 대학생 표본의 크기가 작은 관계로 통계적 유의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있었으나 회귀계수의 크기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예술형을 예측해주고 성실성은 관습형과 관련성을 보였다.

성별과 표본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난 것은 정서적 불안정성 요인이다. 전국 표본 남성에서는 흥미 유형과 전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못했지만 여성의 경우, 관습형과 뚜렷한 정적인 예측을 보였고 예술형과는 부적인 예측을 나타냈다. 그러나 대학생 표본에서는 정서적 불안정성이 탐구형과 사회형을 의미있게 예측하고 있었다. 이러한 패턴이 다른 분석 방법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준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에 포함될 최대선형조합수의 수는 χ^2 값의 유의미성에 근거하였다. 전국 표본에서는 정준함수가 5개 추출되었으며, 그 중 4개가 유의미한($p<.001$)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가 동일했다.

다음의 표 13에서는 정준부하량(canonical loading)을 통하여 성격변인군과 흥미변인군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전국 표본에서 추출된 첫 번째 정준함수는 남녀 모두에게 있어, 경험에 대한 개방성(남, .995; 여, .950)과 예술형(남, .955; 여, .879)간의 관계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외향성(.630)과 진취형(.728)간의 관계도 설명될 수 있지만 4번째 정준함수에서 다시 한 번 그 관계(외향성, .631; 진취형, .651)가 제시되었다. 남성의 외향성(.837)은 두 번째

표 12. 흥미에 대한 성격요인들의 회귀(여성: 전국표본)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외향성	.044	-.089	-.016	.230**	.228**	-.041
호감성	.074	-.013	-.001	.342**	-.136**	.104*
성실성	.006	.141*	-.024	-.013	.126*	.447**
정서적 불안정성	.053	-.006	-.105*	-.047	-.079	.201**
경험에 대한 개방성	.067	.353**	.636**	.184**	.279**	-.038
중다 상관 R	.126	.398	.625	.546	.518	.390
R-square	.016	.158	.390	.298	.269	.152

주. 기록된 숫자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이며, * $p<.05$, ** $p<.01$ 을 의미한다.

표 13. 정준 구조표(전국표본)

차원명	정준 부하량							
	남성				여성			
	1	2	3	4	1	2	3	4
현실형	.044	.242	-.145	.122	.158	.009	.119	-.081
탐구형	.600	-.113	.045	.428	.476	-.193	.398	-.137
예술형	.955	-.150	-.031	.017	.879	-.170	.138	-.277
사회형	.532	.649	-.403	.342	.594	.769	.147	.088
진취형	.518	.704	.440	-.179	.728	-.069	.089	.651
관습형	.329	.319	.482	.720	.188	.110	.913	.302
외향성	.425	.837	.028	-.319	.630	.351	-.182	.631
호감성	.152	.422	-.722	.512	.189	.910	.262	-.245
성실성	.389	.564	.382	.615	.539	.120	.661	.403
정서적 불안정성	-.162	-.453	-.038	-.363	-.274	-.380	.091	-.178
경험에 대한 개방성	.995	-.019	.055	.032	.950	-.184	.130	-.132

주. 진한 글씨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성이 있는 부하량을 표시한 것이다.

함수에서 볼 수 있는데, 사회형(.650), 진취형(.704)과 관계가 있었다. 남성의 호감성은 여성보다 다소 복잡한 관계를 보였다.

세 번째 함수에서 남성의 호감성(-.722)은 사회형(-.403), 진취형(.440), 관습형(.482)과 관련있는 반면, 두 번째 함수에서 여성의 호감성(.911)은 오직 사회형(.770)과 관련 있었다. 한편, 남성의 경우, 호감성(.512)과 관습형(.720)간의 관계는 네 번째 함수에서도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실성(남, .615; 여, .662)은 남녀 모두 관습형(남, .712; 여, .913)과 관련 있었다.

대학생 표본에 대해서도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정준상관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총 5개의 함수가 산출되었고, 그 중에서 카이자승값이 유의미한 것은 3개였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역시 5개의 함수가 산출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1개였다.

대학생 남성 표본에서 추출된 첫 번째 정준함수에서는 예술형(-.665)과 사회형(-.746)이 성격요인 중 외향성(-.694)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841) 두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함수에서는 진취형(-.808)과 성격의 호감성(.543) 요인이 정반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진취형은 외향성(-.484)과도 비교적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세 번째 함수에서는 예술형(-.621)이 역시 정서적 불안정성(-.436)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요인(-.426)과 비교적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대학생 여성

표 14. 정준 구조표(대학생 표본)

차원명	정준 부하량			
	남성			여성
	1	2	3	1
현실형	-.376	.011	.152	-.228
탐구형	-.278	.389	.208	-.361
예술형	-.665	.136	-.621	.096
사회형	-.746	.062	.200	.587
진취형	-.529	-.808	.140	-.610
현실형	-.116	-.454	-.294	-.362
외향성	-.694	-.484	.083	-.073
호감성	-.151	.543	.381	.688
성실성	-.428	-.450	-.161	-.443
정서성 ^a	.435	-.056	-.436	.381
개방성 ^b	-.841	.161	-.426	-.316

주. 진한 글씨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성이 있는 부하량을 표시한 것이다

a는 정서적 불안정성, b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임.

표본에서는 사회형(.587)과 진취형(-.610)이 성격요인 중 호감성(.688)과 성실성(-.443)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두 가지 표본에서 획득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성격의 5요인과 흥미의 6개 유형간의 상용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우선 성격과 흥미 검사 각각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5요인 모형에 근거한 서로 다른 성격 검사가 두 개의 서로 다른 표본에 대한 분석에서 동일한 요인구조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성격 5요인 검사의 구성타당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흥미 검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표본에서 동일한 요인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흥미 검사 역시 충분한 일반화 가능성과 구성타당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두 검사 모두 미리 가정된 5요인과 6개 유형의 구조를 가진다는 점이 확인되었지만, 대학생 표본 연구에서 NEO 인성검사의 경우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요인의 하위 척도중에서 가치와 활동 척도가 제대로 묶이지 못했다.

전국표본에서 관습형(행동, 유능, 일반)은 진취형에 보다 높은 부하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는데, Holland의 VPI와 SDS 위주로 진로탐색검사를 제작한 안창규(1996a)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안창규(1996b) 연구에서도 흥미 검사는 전반적으로 요인구조가 불명확하였는데, 특히 사회형과 관습형에서 매우 불명확하였다. 그 중에서도 관습형의 행동과 유능성 척도가 관습형 보다 오히려 진취형에 더 큰 부하량을 가지는 것이 특이한 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Holland의 6각형 모형을 보면 전혀 의외의 결과는 아니었다. 즉 6각형 모형으로 볼 때에도 관습형은 진취형과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즉 이 둘간의 개념적 유사성이 그만큼 큰 것이다.

성격과 흥미와의 관계는 성격의 5요인을 예측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전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두 개념간에는 상당한 중복이 있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하 개방성)이었다. 개방성 요인은 전반적으로 흥미유형을 가장 포괄적으로 예측하고 있었으며, 현실형과 관습형을 제외한 흥미유형 모두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전국 표본과 대학생 표본 모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성격의 5요인과 개념적으로 관련성 있는 여러 성격 검사들과 Holland 유형과의 상관을 분석한 Hogan과 Black(1996)의 자료 또한 이러한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한편, 전국 표본 분석에 따르면 사회형, 진취형이 여러 성격요인(외향성, 호감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 걸쳐 가장 많이 예측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외향성이나 호감성이 기본적으로 대인관계 측면과 관련된 성격이라는 점에서 관련성은 충분히 이해할 만 했다. Costa와 McCrae (1992)는 사물/사람 차원이 사회형과 진취형을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차원이며, 외향성, 호감성과 가장 밀접한 상응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사교적인, 말하기를 좋아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특성과, 우호적인, 이타적인, 감정이입적인 특성은 각각 외향성, 호감성과 사회형, 진취형을 연결시키는 개념적 고리인 셈이다.

성실성은 남녀 공통적으로 관습형만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두 표본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관습형이 세밀하고 꼼꼼한 일에 능숙하며, 대체로 우체국 직원, 회계사, 비서, 은행 출납계 직원과 같은 직업환경과 밀접하므로, 과제지향적인 성실한 사람이 적합한 것이다. 이는 여러 직업집단에서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이 개인의 수행을 예측하는데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Ones 등(1993)의 연구 결과와는 불일치하는 결과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Tett(1998)는 성격 차원과 직무수행 사이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메타분석해 본 결과, 성실성의 직무 수행 예측력이 생각처럼 높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여러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무 수행을 예측함에 있어서 성실성은 .09(영업직)에서 .13(관리직과 경찰직)의 예측타당도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으며, 나아가 성실성이 일부 직무에서는 직무수행과의 상관관계가 부적인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론적인 추론을 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본 연구 결과가 전혀 의외의 결과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두 표본 모두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현실형은 성격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비율이 매우 적었다는 점도 특이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Costa 등(1992)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현실형이 남성성(masculinity)과 관계 있는데, 성격의 5요인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Gottfredson 등(1993)도 현실형과 5요인간에는 .09 이상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다소 복잡한 관계를 산출하였던 회귀분석의 결과는 정준상관분석을 통해 보다 명확해졌다. 표 15는 본 연구결과를 요약한 것인데, 강조된 글씨는 회귀분

표 15. 성격의 5요인과 흥미 6유형간의 관계 요약

연구자	성격의 5요인				
	E	A	C	N	O
남 성					
Gottfredson, Jones, & Holland(1991)	S, E	R, I, A, S, C	R, I, A, S, C	I	A
Tokar & Swanson(1995)	E				I, A
Schinka, Dye, & Curtis(1997)	S, E	S	S, E		I, A, E
본연구 (전국표본)	I, S, E	S, E	C		I, A, S, E
본연구 (대학생표본)	A, S, E	E	S, E, C	I, A	A, S
여 성					
Gottfredson, Jones, & Holland(1991)	A, S	S	R, I, C	S	I, A, S
Tokar & Swanson(1995)	S, E	S			I, A
Schinka, Dye, & Curtis(1997)	I, A, E		I, C	I, C	I, A, E
본연구 (전국표본)	S, E	S, E, C	I, E, C	A, C	I, A, S, E
본연구 (대학생표본)		S, E	S, E		A

주. 1. 강조된 영문은 회귀분석결과와 정준상관분석결과를 중복 표시한 것이며, 동시에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20 이상으로 나타난 관계를 의미한다(대학생 표본은 상관분석과 정준분석).

2. 성격의 E=외향성, A=호감성, C=성실성, N=정서적 불안정성, O=경험에 대한 개방성, 흥미의 R=현실형, I=탐구형, A=예술형, S=사회형, E=진취형, C=관습형을 의미이다.

3. ()는 부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석 결과와 정준상관분석 결과가 중복되는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정준상관분석의 결과는 대부분 회귀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것이었으며, 흥미롭게도 표준회귀계수가 .23이상의 관계만을 지적하고 있었다. 따라서 강조된 글씨는 보다 명확한 성격과 흥미간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격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흥미의 현실형 사이에는 남녀 모두에서 아무런 상용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두 표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정서적 불안정성은 대학생 남성 표본에서 예술형과 약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관습형과 성실성은 일관성있게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외향성은 두 표본의 남성들에게서만 흥미유형 중 진취형 및 사회형과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두 표본의 남녀 모두에서 예술형과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다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성격의 5요인은 6개의 흥미유형 모두를 반영하지는 않는다. 즉 5요인 검사는 직업흥미, 가치관, 신념과 같은 측면을 주된 측정 영역으로 삼고 있는 흥미 검사와는 다른 영역을 측정하고 있다. 즉 성격 모형과 흥미 모형은 개념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상보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직업 흥미 검사는 직업 상담 장면에서 유용하고 타당한 도구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격의 핵심적인 영역까지 무리없이 다룰 수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직업 상담 장면에서는 직업 흥미 검사와 더불어 성격 검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연구자의 견해로는 흥미 검사는 직업의 선택과 관계된 예측을 하는데 효과적이며, 성격 검사의 경우는 직업 선택 후 수행 수준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직무 수행을 예측함에 있어서 성격 검사가 타당하다는 점은 여러 국내 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민병모, 이경임, 정재창, 1997; 유태용, 김명연, 이도형, 1997; 유태용, 이도형, 1997). 둘째, 성격과 흥미간의 관계에는 남녀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더해, 본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 사용한 성격 검사와 흥미 검사의 구성타당도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즉 동일한 이론에 근거한 서로 다른 성격 검사의 요인구조가 동일하다는 점과 흥미 검사 또한 표본의 종류에 따라 요인 구조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도 큰 수확이었다.

상기한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선 대학생 표본이 전국 표본에 비해서 표본의 크기와 표집 절

차 면에서 부실했으며 결과적으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특히 표본의 크기가 작음으로 인해서 대학생의 성별을 기준으로 성격과 흥미 각 차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결과 일반화에 중요한 한계로 지적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로 전국 표본과 대학생 표본에 사용한 성격검사가 동일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같은 5요인 이론을 토대로 제작된 검사라고 할 지라도 검사 문항과 체계가 일정 부분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역시 두 표본의 성격 검사 결과를 수평으로 비교하는 데는 문제가 따를 수 있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성격 검사의 교차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두가지 5요인 성격검사가 충분한 구성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참고 문헌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1998). **직업성숙도 검사 개발 연구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민병모, 이경임, 정재창(1997). **NEO인성검사(NEO PI-RS)**. PSI 컨설팅.

안창규 (1996a). **진로 및 적성 탐색검사의 해석과 활용**. 서울:한국가이던스.

안창규 (1996b). **진로 탐색 검사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8권 제 1 호, 169-199.

유태용, 김명언, 이도형(1997). **5요인 성격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제10권 제1호, 85-102.

유태용, 이도형 (1997). **다양한 직군에서의 성격의 5 요인과 직무수행과의 관계**. 기업경영연구, 제 5 권, 69-94. 광운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이영준 (1995). **SPSS/PC*를 이용한 다변량분석**. 도서출판 석정.

Costa, P. T. Jr., & McCrae, R. R.(1985). *The NEO PI: Manual Form S and Form R*.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Costa, P. T. Jr., & McCrae, R. R.(1992). *Revised*

NEO-PI-R and NEO-FFI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Costa, P. T. Jr, McCrae, R. R., & Holland, J. L. (1984). Personality and vocational interests in an adult sampl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9*, 390-400.

Digman, J. M. (1990). Personality Structure: Emergence of the five-factor model.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1*, 417-440.

Dunnette, M.D., Kirchner, W.K., & DeGidio, J.(1958). Relation among scores on Edwards Personal Preference Schedule,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and Strong Vocational Blank for an industrial sampl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42*, 178-181.

Edwards, A.L.(1959). *Edwards Personal Preference Schedule manual*. New York: Psychological Corporation.

Fruyt, F. D., & Mervielde, I. (1997).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Holland's RIASEC interest typ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 87-103.

Goh, D. S., & Leong, F. T. L.(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Holland's theory of vocational interests and Eysenck's model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 555-562.

Gottfredson, G. D., Jones, E. M., & Holland, J. L. (1993). Personality and vocational interests: The relation of Holland's six interest dimensions to five robust dimen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518-524.

Gough, H. G. (1987).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administrator's guide*.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Hansen, J. C., Collins, R. C., Swanson, J. L., & Fouad, N. A. (1993). Gender differences in the structure of interes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0*, 200-211.

- Hofstee, W.K.B.(1990). The use of everyday personality language for scientific purpos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4, 77-88.
- Hogan, R.(1983). Socioanalytic theory of personality. In M.M.Page (Ed.), *1982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Personality - current theory and research (pp.55-89)*.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Hogan, R., & Blake, R. J. (1996). Vocational Interests: Matching self-concept with the work environment. In K. R. Murphy(Eds.), *Individual Differences and Behavior in Organizations* (pp.103-104).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Holland, J. L.(1973).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career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olland, J. L.(1985a).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choices and work environment(2nd ed.)*. Englewood Cliffs, NF: Prentice-Hall.
- Holland, J. L.(1985b).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 Manual-1985 edition*.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Holland, J. L.(1992). *Making Vocational Choices (2n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Holland, J. L.(1966). *The psychology of vocational choice*. Waltham, MA: Blaisdell.
- Hough, L. M., & Schneider, R. J. (1996). Personality Traits, Taxonomies, and Applications in Organizations. In K. R. Murphy(Eds.), *Individual Differences and Behavior in Organizations*(p42).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 Johnson, R.W., Flammer, D.P., & Nelson, J.G. (1975). Multiple correlations between personality factors and SVIB occupational sca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 217-223.
- Kanfer, R., Ackerman, P.L., & Heggestad, E.D.(1996). *Motivational skills and self-regulation for learning:A trait perspective*.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8, 185-209.
- McCrae, R. R., & Costa, P. T. Jr. (1985). Comparison of EPI and psychoticism scales with measures of the five-factor theory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 587-597.
- Ones, D. S., Viswesvaran, C., & Schmidt, F. L. (1993). Comprehensive meta-analysis of integrity test validation: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personnel selection and theories of job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 679-703.
- Peraino, J.M., & Willerman, L.(1983). Personality correlates of occupational status according to Holland typ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268-277.
- Piedmont, R. L., & Joon-Ho Chae. (1997). Cross-cultural generalizability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8, 131-155.
- Schinka, J. A., Dye, D. A., & Curtiss, G. (1997). Correspondence between Five-Factor and RIASEC Model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8, 355-368.
- Tett, R. P.(1998). Is conscientiousness always positively related to job performance? *SIOP TIP*, vol.36.
- Tokar, D. M., & Swanson, J. L. (1995). Evaluation of correspondence between Holland's vocational personality typology and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0, 89-108.

1차 원고 접수: 1999년 3월 2일

2차 원고 접수: 1999년 5월 3일

The Relationship between Holland's RIASEC Interest Types and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Dong-Gun Park,
Seong-Hoon Kim, and Young-Woon Hur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examine the relation of Holland's six interest dimensions to five robust dimensions of personality. Two samples were used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the study: one is a randomly stratified national sample, and the other a college undergraduate student sample. The results based on the samples indicated that the interest test and the two personality tests used for this study have construct validities to a satisfactory degree. It was found that the dimensions of interest and personality were interrelated to some extent. The resulting correlations of the dimensions revealed, however, that the constructs of interest and personality still have their own unique variances to a larger degree, which are not explained by each other. It suggests that in order to obtain more exact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vocational counseling, a personality test be used in addition to an interest test.